고전주의의 재토착화와 구축적 논리의 문제
- 군너 아스플룬트의 우드랜드 채플(1918-20)에 관한 연구 -

김 현 섭*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주제어 : 고전주의의 재토착화, 구축적 논리, 군너 아스플룬트, 우드랜드 채플

1. 서론

서양건축사에 있어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건축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5세기 브루넬레스키와 알베르티로부터 비롯된 르네상스는 고전주의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이후의 건축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르네상스가 재발견하고 새롭게 규정한 고전건축의 비례와 척도는 임의적 낭만성을 뛰어넘어 우주적 질서에 부합되는 보편적 미의식을 담보하는 것으로 믿어졌던 것이다. 18-19세기의 신고전주의는 르네상스의 틀을 넘어서서 고전건축의 원류를 직접 재음미함으로써 부흥하였다. 20세기의 근대건축이 역사의 전통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발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아돌프 로스, 르 꼬르뷔지에, 미스 반 데어 로에 등 근대 거장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고전적 질서가 보여주듯[1] 이 역시 실상 고전주의 전통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았다. 한편, 근대 기능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가운데에서도 고전적 모티브가 나타나는데, 매우 단순화시켜 서술하면, 미국의 '하드코어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의[2] 직접적인 고전 인용과 유럽의 신합리주의 계열 건축가들의 심층적인 고전 인용을 그 예라 하겠다.

이와 같은 고전의 다층적 재현 이면에 제각각의 콘텍스트와 관념과 지향점이 내재되어 있으나 우리는 여기에서 고전주의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를 느낀다. 데미트리 포피리오스는 고전주의를 '차용된 화려한 양식'이 아닌 '구축의 존재론(ontology of construction)'이자 하나의 '감수성(sensibility)'이라 주장하며(1982),[3] 오늘날에도 고전주의가 적법함을 내세운다(1989).[4] 그에게 있어서 고

* 교신저자, 이메일: archistory@korea.ac.kr

1) 일부의 예이지만, 로스 작품에 나타나는 고전적 요소는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며, 꼬르뷔지에의 규준선 및 모듈러는 르네상스적 전통에 있고, 미스가 쉉켈이나 베렌스로부터 이어받은 고전적 질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2) "Venturi, Stern or Moore's work - three of the hard-core PMs ..."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the Post-Modern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77, p.7

3) Demetri Porphyrios, 'Scandinavian Doricism', 'Classicism is not a style', *Classicism is Not a Style*, Architectural Design & Academy Editions, London, 1982, pp.22-35 & 50-57. 여기에서 '구축의 존재론'으로 번역한 'ontology of construction'을 포피리오스는 'ontology of building'과 혼용한다.

4) Demetri Porphyrios, 'The relevance of classical

전주의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근본적으로 토착 건축의 구축적 논리(the constructional logic of vernacular)에 있으며, 이것이 신화적 가공을 거쳐 미학적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고전주의는 본질적으로 건축의 기원 및 그 기원에 대한 신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알란 콜쿤(1984)은 '토착 고전주의(vernacular classicism)'라는 다소 역설적 상황에 면하여, 고전건축의 순전한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과정을 '고전주의의 재토착화(revernacularization of classicism)'라는 용어로 설명한다.[5] 리차드 웨스톤(1995)도 감지했듯,[6] 포피리오스와 콜쿤의 고전주의 개념에 진한 울림을 주는 건축의 실례를 우리는 20세기 초 북구 고전주의 계열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7] 그 가운데 '고전주의의 재토착화'라는 말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면 군너 아스플룬트가 설계한 스톡홀름 근교의 우드랜드 채플(1918-20)이다. 이 예배당은 그 원시성과 고전성의 상징적 결합으로 인해 북구 고전주의의 대표작으로도 꼽힐 뿐만 아니라, 실제 포피리오스가 지구르트 레버렌츠의 부활 채플(1921-25)과 더불어 이 흐름의 (그의 용어로 '스칸디나비아 도릭주의'의) 선두 모델로 제시했다.[8]

<그림 1> 우드랜드 채플, 우드랜드 공동묘지, 스톡홀름 엔스케데, 1918-20

<그림 2> 부활 채플, 우드랜드 공동묘지, 1921-25

이 연구는 고전주의의 본질이 토착 건축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스플룬트의 우드랜드 채플을 바라본다. 즉, 포피리오스가 서술한 고전주의에 해당하는 예로 우드랜드 채플을 택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콜쿤이 제시한 '고전주의의 재토착화'라는 조금

architecture', *Architectural Design* 59, no. 9-10 (1989). Republished in: Kate Nesbitt (ed.), 1996, pp.91-96

5) Alan Colquhoun, 'Vernacular Classicism', *Architectural Design* 54, no. 5-6 (1984). Republished in: Alan Colquhoun, 1989, pp.21-31. 본고에서는 포피리오스나 콜쿤이 사용한 'vernacular'라는 단어를 '토착'으로 번역한다. 이 단어는 '토속'이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되는 것으로 보이나, 'revernacularization'이라는 단어의 경우 '재토속화' 보다 '재토착화'에 더 알맞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착'이라는 말은 포피리오스가 서술한 '땅에 뿌리내림(rootedness to the land)'과도 잘 부합된다.

6) "... Alan Colquhoun has written of the Abbé Laugier's primitive hut, 'not the discovery of vernacular building , but the revernacularization of classicism with which to substantiate a myth of origins', and it is in this light that we must understand Demetri Porphyrios's assertion that 'classicism and vernacular, as understood and practised in Scandinavia, were of the same kind ... ." Richard Weston, *Alvar Aalto*, Phaidon, London, 1995, p.26

7) 북구 고전주의에 대해서는 Simo Paavilainen (ed.), *Nordic Classicism: 1910-1930*, Museum of Finnish Architecture, Helsinki, 1982 및 拙稿 「군너 아스플룬트와 알바 알토의 고전주의 건축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권, 9호, 2010, 209-216쪽을 참조하시오.

8) Demetri Porphyrios, 'Scandinavian Doricism', 1982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도 수렴됨을 주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포피리오스가 고전주의의 일차 조건으로 제기한 구축의 논리에 얼마나 부합되는지에 대한 반론의 여지도 보인다. 요컨대 이 연구는 아스플룬트의 우드랜드 채플을 고전주의의 재토착화라는 개념을 통해 고찰하는 한편, 여기에 드러나는 구축 논리의 모순점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고전주의의 본질, 더 나아가 건축의 본질에까지도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2. 도릭주의의 감수성 및 고전주의의 재토착화

2-1. 북유럽 '도릭주의의 감수성'

북유럽의 근대건축 흐름 가운데 1910~30년경 고전주의 리바이벌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근대건축운동의 핵심지였던 중부유럽의 경우 아르누보 쇠퇴 이후 아방가르드 내에서 추상화의 경향이 대세였다면, 북유럽에서는 기능주의를 받아들이기 이전 대부분의 주도적 건축가들이 고전주의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북구 고전주의(Nordic Classicism)'라 명명된 이 경향이 18-19세기의 신고전주의와 다른 점은 "그 규모와 규율이 완화되어 훨씬 온건한 형식을 띤다는 사실"이다. 북유럽 고전주의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데에는 그 이전, 1900년 전후로 우세했던 민족낭만주의 경향의 재료사실주의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낭만주의의 자유로움과 지역 토착의 재료 및 건축 습성이 고전주의 사조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9]

포피리오스(1982)는 이러한 북구 고전주의를 '스칸디나비아 도릭주의(Scandinavian Doricism)'로 규정했는데,[10] 도릭주의는 고전주의라는 보다 포괄적인 말보다 세분화된 정의라 할 수 있다. 고전주의의 본질을 논하는 관점에서 이 용어의 사용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릭 오더(Doric Order)야말로 고전 규범 이전의 시원성(始原性)에 더 근접하기 때문이다. 니콜라우스 펩스너도 서술했듯이 실제의 도릭 오더는 18세기 후반까지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었고, 따라서 팔라디오에 의해 세련된 고전주의에 익숙한 이들에게 이는 억세고 투박한 원시의 규범이었던 것이다.[11] 그러나 도릭 오더가 함의하는 그 시원성의 이유가 바로 북유럽의 고전주의를 거친 토착 전통과 매개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12] 스칸디나비아 도릭주의는, 요컨대,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고전주의'와 '토착성'이 동일한 유효성을 가지며 상호 해함 없이 이해되고 실천되어온 흐름이라 하겠다. 이는 양식적 절충이라기보다 하나의 감수성이다. 이러한 '도릭주의의 감수성(Doricist sensibility)'은 고전과 토착이 공유한 건축의 가장 원초적 본질을 내포한다. 그것은 바로 '짓기(building)'와 '살기(dwelling)'라는 근원적 행위이다. 포피리오스는 이들을 각각 '구축의 존재론'과 '거주의 존재론'이라 표현한다.[13] 여기에서 '구축'은 '짓기의 합리성'을

9) 拙稿, 2010. 10. 북유럽의 민족낭만주의(재료사실주의) 건축에 대해서는 拙稿, 「민족정체성의 건축적 구현: 1900년 전후 핀란드 민족낭만주의 건축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14권 4호, 2005, 59-72쪽을 참조하시오.

10) Porphyrios, 'Scandinavian Doricism', 1982. 원래 1977년 『Lotus International』(vol. 16)에서 먼저 출판되었다.

11) 1763년 빙켈만의 『Hisotry of Ancient Art』에 와서야 도릭 오더는 그 '고귀한 단순함과 고요한 위대함'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Nikolaus Pevsner, *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 Penguin, London, 1972, pp. 356-357

12) 이런 상황은 민족낭만주의 계열의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핀란드의 아끄셀리 갈렌-깔렐라의 '깔렐라-칼림'이 대표적인 예이다. 拙稿, 2005 참조

13) 본고에서는 'building'과 'dwelling'이라는 단어가 '존

의미하는 것으로, 고전주의 건물에서 역사적 연상작용이나 재현기능을 제거하면 바로 그 합리적 구축의 얼개가 남게 된다. 그러나 고전과 토착이 융합된 도릭주의의 감수성이 단지 구축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신화(myth)가 덧입혀져야하고, '거주의 존재론'이란 그 신화의 힘이 작동하는 쉘터에라야만 깃든다고 할 수 있다.[14] 이 같은 도릭주의의 감수성은 추상적 인식론의 굴레를 벗고 세계와 자아의 교감을 추구하려는 실존주의 사상가들의 존재론적 관점과 상당 부분 공명한다. 특히, 하이데거의 「짓기, 살기, 생각하기」에 내포된 실존적 삶과 장소와 구축의 관계나 「시적으로 살기」에 나타난 시적 ('신화적'이라 바꿔 말할 만한) 함의를 갖는 건축의 근원적 중요성이 바로 그 연관점이라 하겠다.[15]

'스칸디나비아 도릭주의'의 논점은 포피리오스에 있어서 단지 20세기 초 북유럽만의 특수예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이를 보다 보편적인 고전주의의 문제로 끌어내어 논한다. 그리고 고전주의 전반을 동일한 논거(토착의 구축논리와 신화적 가공)를 통해 재평가하고 "고전주의는 양식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2-2. 로지에의 원시 오두막과 '고전주의의 재토착화'

포피리오스가 북구 고전주의와 관련해 제기한 '고전적인 것과 토착적인 것의 결합'이라는 테마는, 2년 뒤 같은 저널 『Architectural Design』에서 출판된 「토착 고전주의」(1984)라는 콜쿤의 글을 통해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어졌다.[16] 그 역시 '토착 고전주의'라는 말이 갖는 패러독스를 지적하는데, '고전적(classical/classic)'이라는 단어는 '고위 계층', '규범적', '예술적'이라는 개념과 연관되는 반면, '토착적(vernacular)'이라는 단어는 '지역', '토종', '하급 형태' 등 낮은 위계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18세기 말, 확고했던 고전적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그 양극적 관념이 탈색되고 토착의 예술 형태도 자체만의 고유한 가치로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경향의 배경에는 낭만주의의 대두가 있었으며, '고전적'이라는 말 자체도 '낭만적'이라는 말과의 구분을 위해 생성된 것이다.[17]

이 글에서 콜쿤이 주장하는 핵심 논점은 '토착 고전주의'라는 용어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우선 우리는 18세기 계몽주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원시주의(primitivism)'가 토착 건축에 대한 동시대 낭만주의자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낭만주의자들은 토착 건축의 파편적이고, 일견 무질서해 보이는 요소들도 이성적 분석에 근거한 것과는 다른 심원한 총체성을 내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스스로도 이러한 원천에 고무되어 예술적 창작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반면 이성에 근거한 계몽주의자들의 원시 회귀는 토착의 색다른 전통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자연법칙의 필요성에 순응하는 보편 언어로서의 건축적 원천"으로 돌아

재론(ontology)'과 구를 이룰 경우 '구축'과 '거주'로 번역하지만, 두 단어만 대비시키는 상황에서는 '짓기'와 '살기'로 옮기도록 한다. 이는 하이데거의 글 「Building, Dwelling, Thinking」을 순 한글로 「짓기, 살기, 생각하기」라 번역한 김우창(「집짓기와 동네짓기」, 경향신문, 2005. 9. 28)을 따른 것이다.

14) Porphyrios, 'Scandinavian Doricism'

15) Martin Heidegger, 'Building, Dwelling, Thinking' & 'Poetically Man Dwells'. In: Neil Leach (ed.), 1997, pp.100-119

16) 주 5 참조. 비록 콜쿤이 북유럽의 사례나 포피리오스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Architectural Design』의 영향력이나 이를 통한 두 인물의 활발한 활동을 고려하면, 그는 분명 이를 마음에 두었을 것이다.

17) 그 전까지는 'antique'이라는 말로 그리스와 로마의 예술을 지칭했다.

가기 위함이었다.[18] 이런 이유로 그들은 사회가 타락하여 파편화되기 이전 자연 상태의 원시 건축을 상정하고 참조하였던 것이다. 그 상징적인 예가 마크 안토닌 로지에(1713-69)의 원시 오두막이다.

잘 알려졌듯, 예수회 신부였던 로지에는 『건축에 관한 에세이(Essai sur l'architecture)』(1753)에서 건축의 기원으로서의 작은 원시 오두막을 기술하고, 제2판(1755)에는 그 도판을 삽입한다. 그의 오두막은 수직으로 선 네 개의 튼튼한 나무 몸통 위에 수평으로 네 개의 나뭇가지를 올리고, 또 그 위에 다른 나뭇가지들을 기울여 지붕을 만든 형국이다. 여기에서 수직의 나무 몸통은 기둥, 수평의 나뭇가지는 엔타블러춰, 그리고 기울인 나뭇가지가 수평의 것과 이루는 삼각형은 페디먼트를 상징한다. 로지에는 이렇게 환원된 건축요소의 조합을 통해 "모든 장려한 건축물들이 근간을 둔 유형"을 보이고자 했으며, 그 단순성이야말로 '진정한 완결성'을 얻게 하는 인자임을 주장했던 것이다.[19] 그런데 이 원시 오두막에서 우리가 인지해야할 점은 (루소가 원시 사회를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로지에가 실제의 토착 건축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그 모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럴 것이라고, 혹은 그러해야 한다고 이성의 추론을 통해 (물론 이것도 상당히 낭만적이지만) 내린 결론이라는 사실이다. 즉, 그의 주안점은 건축의 토착적 발생에 관한 문제에 있다기보다 고전건축의 순수한 원리를 추출하는 데에 있었다. 콜쿤은 이것을 '고전주의의 재토착화'라 부르며, 그것이 "기원의 신화를 실체화"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토착 고전주의'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고전주의가 그 자체의 기원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다.[20]

<그림 3> M. A. 로지에, 원시 오두막, 1755

콜쿤의 주장을 포피리오스가 제기한 스칸디나비아 도릭주의에 비추어보면 몇 가지 중대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후자가 고전적인 것과 토착적인 것을 등가로 여기고 융화시킨 반면, 전자는 고전의 기원으로서의 토착을 추론했다는 점이다. 이점은 로지에의 원시 오두막이 실제의 토착 건축과 무관하지만 북구 고전주의의 건물들은 토착 건축과의 경험적 교감이 있었다는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로지에의 모델이 건축의 필수요소를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피리오스가 중시했던 구축의 논리에 그다지 집착하지 않았다는 점, 콜쿤이 로지에에게서 탐지한 신화는 '자연에 근거한 보편적 건축체계'로 볼 수 있는 고전주의의 '기원'에 관한 신화인 반면 포피리오스가 구축의 논리 위에 덧댄 신화는 '거주의 존재론'을 가능케 하는 '땅에 뿌리내림의 신화'라는 점 등이 두 논제를 구별 짓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콜쿤의 '고전주의의 재토착화'라는 개념을 북유럽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첫째, 포피리오스의 도릭주의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지만 결코 절대화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남방 발생의 고전건축이 말 그대

18) Colquhoun, 'Vernacular Classicism'

19) Joseph Rykwert, *On Adam's House in Paradise*, 2nd ed., MIT Press, Cambridge MA, 1982, pp.43-46

20) Colquhoun, 'Vernacular Classicism'

로 북방의 토양에 '재토착화'되었으며, 그 단순성에서 콜쿤이 제기한 '기원의 신화'를 되묻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포피리오스와 콜쿤 모두가 탐구했던 고전과 토착의 공존 문제 자체가[21] 북구 고전주의의 근본 핵심이기 때문이다. 둘의 융합은 (민족낭만과 고전의 만남으로) 낭만의 토양에 자란 이성의 결과로서, 로지에의 계몽주의적 이성이 실상 매우 낭만적이었다는 점과도 통한다.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스칸디나비아 도릭주의의 대표적 예인 아스플룬트의 우드랜드 채플을 고전주의의 재토착화 관점을 통해 고찰해보자.

3. 군너 아스플룬트의 우드랜드 채플(1918-20)

3-1. 배경 / 초기안: '작은 채플'(1918)

스웨덴의 군너 아스플룬트(1885-1940)는 핀란드의 알바 알토(1897-1976)와 더불어 북유럽을 대표하는 근대건축가이다. 아스플룬트는 민족낭만주의의 사조 가운데에서 건축경력을 시작했다가 1910년대 중반부터 북구 고전주의의 흐름에 합류하여 왕성한 활동을 보였으며, 1930년 스톡홀름 국제전시회를 기해 기능주의로 전환하게 된다. 그의 고전주의 시기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드랜드 채플인데, 이는 북구 고전주의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22]

우드랜드 채플은 레버렌츠와 아스플룬트가 오랜 기간 공동으로 작업한 남부 스톡홀름 엔스케데의 우드랜드 공동묘지(1915-61)에 속한 작은 예배당이다.[23] 이를 위한 첫 번 아이디어는 '작은 채플(Little Chapel)'이라 명명된[24] 1918년 8월의 설계안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예배당은 공동묘지 전체의 배치에서 볼 때 북쪽의 주출입구로부터 시작된 축의 끝단인 언덕에 놓이며, 건물 자체는 당시의 고전주의 리바이벌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는 형태라 하겠다. 그리스 신전의 초기 단계에 속하는 프로스타일(prostyle) 유형을 연상시키는 평면, 삼각형 페디먼트의 지붕, 정면 포티코의 코린티안 기둥, 배면 하부의 아치, 측면 지하층 통로 문의 이오니아 신전 모티브, 실내 제단 부분의 천개(天蓋) 및 이를 지지하는 이오니아 기둥 등이 그 고전적 요소이다. 수년 후 실현된 레버렌츠의 부활 채플은 이 설계안의 이미지를 상당부분 연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25] 그러나 '작은 채플'은 우드랜드 채플이 장차 가지게 될 토착성을 이미 일정 정도 머금고 있다고 하겠다. 가장 큰 증거는 외벽 모서리마다 그려 넣은 조적조의 흔적이다. 돌의 재료성을 벽면에 그대로 드러내고자 했던 아스플룬트의 아이디어는 당시 완공된 자신의 칼샴 학교(1912-18)와 같은 민족낭만주의 성향 작품에서 이미 나타난 바이다.[26] 더욱이 배면도에서 보게 되듯 외벽 수직선이 하부에서 살짝 꺾이며 지면과 닿는 점은 (프리핸드 드로잉에서 기인한 것으

21) 콜쿤이 '토착 고전주의'라는 말을 쓰듯, 포피리오스는 도릭주의를 달리 '고전-토착의 감수성 (the classico-vernacular sensibility)'이라고도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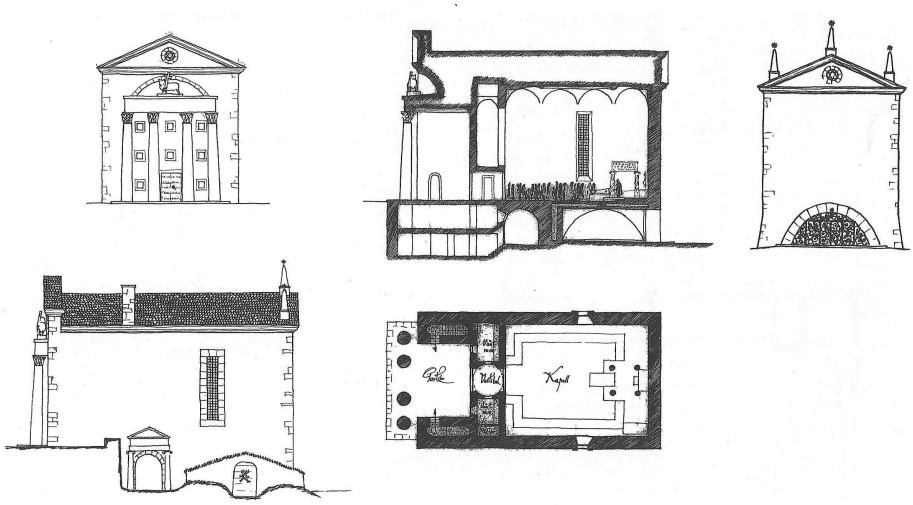
22) 아스플룬트의 건축경향 변천 및 고전주의 시기에 관해서는 拙稿(2010)를 참조하시오.

23) 우드랜드 공동묘지의 오랜 형성과정(1915-61)에 대해서는 Constant(1994)를 보시오.

24) 그 이름이 함의하는 바는 더 큰 주예배당이 나중에 세워질 계획이라는 사실이다.

25) 그러나 사실은 거꾸로 아스플룬트가 당시 레버렌츠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작은 채플'로의 진입 형식은 레버렌츠의 루드 공동묘지 계획안(1918)에서 이미 제시된 바이다. 그리고 우드랜드 채플의 지붕과 돔 역시 레버렌츠와 슈투벨리우스가 설계한 패레 유리공장 강당(1914)의 지붕과 배럴볼트를 연상시킨다.

26) 이 작품을 포함하여 아스플룬트 건축 전반에 대한 최근의 단행본으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Peter Blundell Jones, *Gunnar Asplund*, Phaidon, Londo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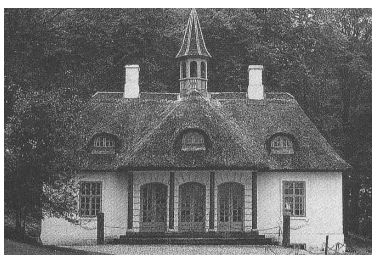
<그림 4> '작은 채플' 계획도면, 1918

로 볼 수도 있지만) 엄정한 고전주의 건축과는 거리가 먼, 지역의 자유성마저 내포한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재정 부족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실현될 수 없었다. 비록 이름과 달리 길이 25m, 높이 12m의 규모 있는 석조 건물이었던 이 예배당은 더 작게, 그리고 목조로 번안될 때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었다.[27]

3-2. 실현된 '우드랜드 채플'(1918-20)

첫 번 계획안이 취소된 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잘 된 일이라 할만하다. 이로 인해 숲속[woodland] 공동묘지를 더 잘 대유(代喩)할 수 있는 숲속 예배당이 창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드랜드 채플은 우선 배치가 주출입구에서 더 멀리 떨어진 숲 가운데로 바뀌었고, 규모가 축소되어[28] 목조로 건설되었다. 새로운 계획안은 재정 부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나 그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 그는 이미 새로운 아이디어에 고무되어 있었다. 그 원천은 안드레아스 키르케럽이 18세기 말 덴마크 뮌(Møn) 섬의 리젤룬트에 디자인한 토착농가(1792-95)로서 고전주의가 토착화된 중요한 선례라 할 수 있다. 특히 구배 큰 초가지붕이 단순한 기둥들과 이루어낸 포티코는 우드랜드 채플과의 연관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 아스플룬트는 리젤룬트에 관한 출판물을 접했고, 직접 답사했으며, 실제로 그 영향을 인정했다.[29]



<그림 5> A. 키르케럽, 리젤룬트 토착농가, 덴마크 뮌 섬, 18세기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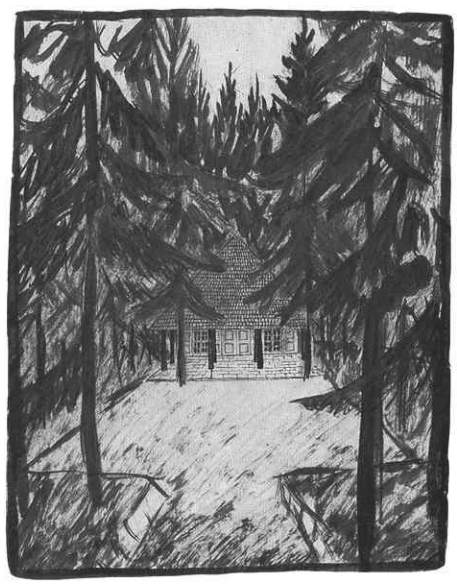
27) 일차대전에 따른 공황의 여파로 담당 위원회는 훨씬 삭감된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길 원했다. Blundell Jones, p.63

28) 길이 약 18m, 높이 8m에, 내부 볼륨도 대폭 감소했다.

29) "이것을 [리젤룬트 책을] 공부하고서 새 종이를 가져와 옛 드로잉을 신선한 에너지로 다시 작업하기 시작한다." Blundell Jones, p.67. 우드랜드 채플에 대한 리젤룬트 농가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Wrede(1980) 및 Constant(1994)에도 서술되어있다.

<그림 6> 우드랜드 채플 정면, 초기 스케치: '그림 5'의 리젤룬트 농가 포티코를 연상시킨다.

<그림 7> 우드랜드 채플 측면, 초기 스케치



<그림 8> 우드랜드 채플, 불투명 수채화, 1918.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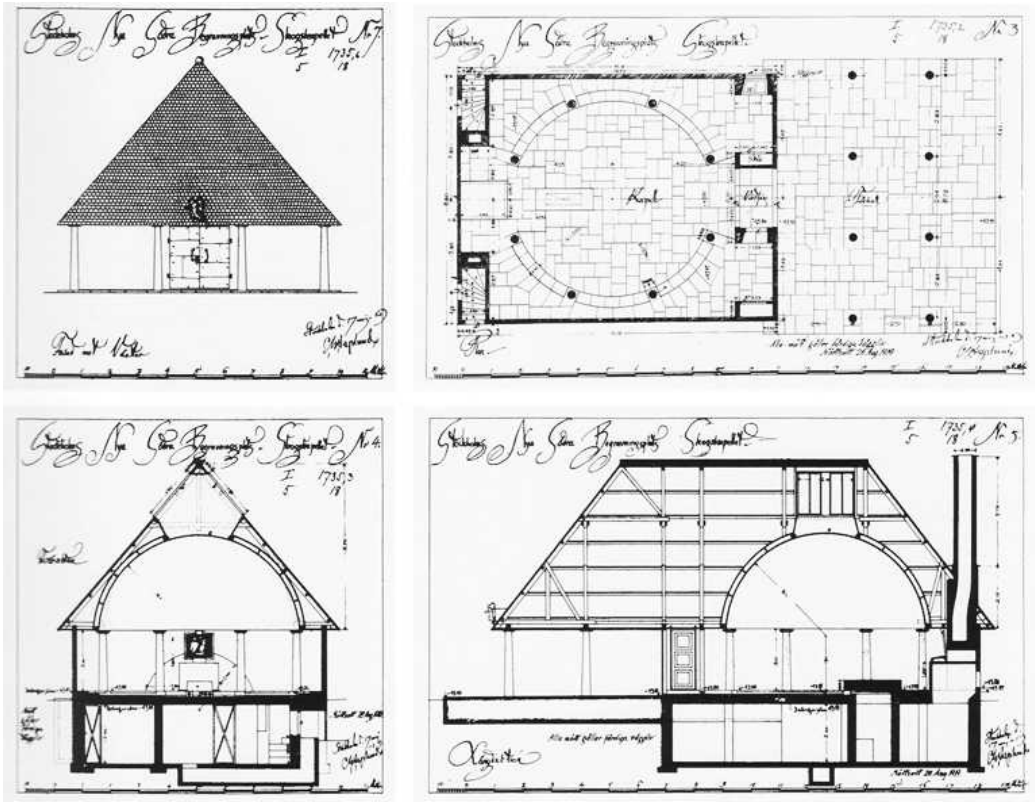
우드랜드 채플이 방문객에게 지우는 첫 번째 인상이라면 큰 구배의 우진각지붕, 정면의 도릭 기둥 포티코,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피라미드형 정면 파사드이다. 더불어 북구의 침엽수림 사이에 놓인 아담한 크기(건물 전체 높이는 8m에 이르지만 지붕을 제외한 실제 포티코의 높이는 약 2.3m)는 이 예배당이 자연 속에 묻혀 거기에 순응하려는 겸허함을 보여준다. 아스플룬트(1921)는 우드랜드 채플이 "자연으로부터 돌출되는 거대한 기념비적 건물"이 아닌 "두 배 높이로 솟아오른 주변의 소나무와 가문비나무" 무리에 녹아들기 원했다고 적는다.[30] 그리고 이런 의도는 그가 건물 설계 시에 그린 수채화(1918. 12)에 잘 드러나며, 특히 나뭇가지와 잎이 이루는 삼각형의 패턴은 예배당 지붕과 같은 유형을 이룸으로써 주변과의 어울림을 강조한다. 주변과 합치되기보다 구별되어 도드라져 보이는 레버렌츠의 부활 채플과는 다른 면모라 하겠다.[31]

실현된 건물과 '작은 채플'의 주된 공유점이라면 포티코를 통한 출입 및 좌우대칭의 축적 구성이다.[32] 그러나 초기안이 입고 있던 고전주의의 옷이 우드랜드 채플에서 크게 누그러졌으며, 전자에서 마련된 고전주의의 재토착화의 단초가 후자에 와서 보다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면의 피라미드형 파사드는 고전건축의 페디먼트를 암시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리젤룬트의 농가를, 보다 근본적으로는 건축의 원형(archetype)에 대한 향수를 짙게 발산한

30) Blundell Jones, p.64

31) 두 건축물만을 비교한다면 우드랜드 채플은 낭만성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킨 반면, 부활 채플은 차가운 고전주의적 성격이 부여되어 주변 환경으로부터 쉬이 구별된다. Stuart Wrede, *The Architect of Erik Gunnar Asplund*, MIT Press, Cambridge MA, 1980, p. 230(주 38)

32) 낮은 아치의 디테일 등 부수적인 공유점들도 존재한다.



<그림 9> 우드랜드 채플, 정면도, 평면도 & 단면도: 처음 여덟 개로 계획된 포티코의 기둥은 한 열 더 증가하여 열두 사도를 상징하게 된다.

다. 지붕의 검정색 나무널은 '작은 채플'의 기와보다도 더 깊은 토착성을 발현하며, 지붕 매스의 이음새는 매듭 없이 만들어져 그 기하학적 순도를 높이고 있다. 포티코를 지지하는 열두 개의 흰색 나무 도릭 기둥들은 주초와 플루팅도 없고 얇은 주두만을 갖는 아주 단순한 형식으로, 고전 규범 발달 이전의 원초적 단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건물의 이러한 외적 상황을 내부로 자연스레 연결해주는 것은 석재의 바닥패턴이다. 그러나 실내의 공간은 외부와는 다른 세계를 열어준다. 예배당의 외부 이미지가 날 것의 풋풋한 맛을 보여준다면 내부 공간은 그보다 훨씬 세련된 우아함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사각형의 실내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이를 가득 채우는 백색의 반구형 돔으로, 포티코에서 그렇듯 코니스와 같은 어떠한 수평 돌림띠 없이 바로 기둥에 의해 지지된다. 그 미끈한 플라스터 마감이 바깥의 거친 지붕널과 대조될 뿐만 아니라, 여기의 도릭 기둥은 플루팅과 주두의 조각, 바닥의 돌림띠가 도색되어 외부의 원시적 사촌들보다 더 진화된 듯한 환상을 갖게 한다.[33] 돔의 정점에 위치한 둥근 천창이 실내를 밝히는데, 실내의 전체적 구도가 로마의 판테온을 연상시키지만 규모적 친밀성과 마감의 온건함으로 그 긴장감의 강도는 훨씬 이완된다고 하겠다.

33) 이는 실제의 조각이 아닌 도색의 효과로서 (Constant, p.58 & 181) 아스플룬트의 유희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림 10> 우드랜드 채플, 포티코의 도릭 기둥

<그림 11> 우드랜드 채플, 내부 공간

3-3. 우드랜드 채플의 '고전주의의 재토착화' 특성

이와 같은 서술을 근간으로 우드랜드 채플에 나타난 재토착화된 고전주의의 특성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토착의 이미지: 이것은 가장 자명한 특징으로서, 이 예배당이 고전주의에 의지하면서도 토착의 이미지를 매우 진하게 발산한다는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vernacular'라는 단어를 '토착(土着)'으로 번역하였는데,[34] 그 어원은 '노예'를 뜻하는 'verna'이고(Colquhoun) 한자는 '땅에 붙는다'는 뜻으로, 요약하면 이 말은 '땅과 자연에 종속됨'을 의미한다. 우드랜드 채플은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토착의 성격을 갖는다. 첫째는 숲 가운데로의 위치선정 자체가 자연으로의 복속을 의미하는데, 축적 구성의 이성적 배치에 따랐던 '작은 채플' 계획이 취소되면서 자연으로의 진입이 더욱 가능해졌다. 이 건물을 숲에 종속시키는 개념을 아스플룬트는 명백히 내세웠고,[35] 이로 인해 담당 위원회의 비판을 감수하고 설득해야하기도 했다.[36] 둘째, 건물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그 토착적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주변의 높이 솟은 나무들 속에서 키를 낮춘 것이 일차적이다. 그리고 지붕 아래 포티코는 방문객이 손을 뻗치면 천장에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친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친밀감은 내부 공간도 마찬가지로, 포티코나 실내가 매우 높게 계획되었던 초기안과 차이를 보인다. 셋째, 전술했듯 우진각 지붕의 형상이 주변 침엽수림의 패턴과 융화하는 점에서 '자연에의 종속'을 느끼게 되고, 넷째, 지붕의 나무널, 목재 기둥, 바닥의 석재 패턴과 같은 재료사실주의적 성격이 토착적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 단순성으로의 회귀: 우드랜드 채플은 숲 속에 세워진 '원시 오두막'으로서, 고전건축의 가장 순수한 원리를 보여주고자 했던 로지에의 그것을 연상시킨다. 이 건물의 단순함을 드러내는 요소로는 첫째로 지붕의 형상을 들 수

34) 주 5 참조.

35) "The building was therefore suppressed, and without any compromise, subordinates itself and merges with nature." Asplund, *Arkitektur*, 1921, pp. 87-93. Cited in: Blundell Jones, p.64

36) Blundell Jones, p.67

있다. 지붕은 건물 높이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한다. 측면의 모양도 그러하지만, 특히 정면의 피라미드형 파사드는 건축의 원형에 대한 모티브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둘째 요소인 단순한 매스 창조와 직결된다. 이 건물의 매스 혹은 볼륨은 외부의 지붕과 내부의 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붕의 경우 (비록 용마루에 통나무를 하나 올리긴 했으나) 각 모서리가 매듭 없이 만나 그 기하학의 순수성이 강화되고, 포티코 천장의 면과 처마 역시 사실상 단차가 없다고 할 만큼 곧바로 연결된다. 내부의 돔은 볼륨의 반전이 만들어낸 반구형 공간으로, 리드(Wrede, p.38)는 지붕에서 돔을 "파낸 것처럼 보인다"고 서술한다. 앞선 언급에서처럼 이 돔도 코니스와 같은 돌림띠가 없고 매끈한 면으로 되어 있어 그 단순성이 강화되었다 하겠다. 셋째는 포티코의 도릭 기둥에 나타난 단순함이다. 이는 고전 규범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처리 역시 원초적이다. 이와 같은 우드랜드 채플의 단순성은 영감의 원천이었던 리젤룬트의 농가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근대 건축가에 의한 영민한 창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3) 신화창조의 힘: 포피리오스가 이야기하는 고전주의의 조건으로서의 '신화창조의 힘(the mythopoeic power)'은 "경험적 현실을 벗어나서 구축과 쉘터를 '기념비적 무익함'의 영역으로까지 승화시키는 힘"이다.[37] 다시 말하면, 구조와 기능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뛰어넘어 무목적의 가치마저도 창출하는(그러나 칸트적 견해에서는 무목적의 목적을 지니는) 미학적이고, 시적인 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드랜드 채플에서의 신화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콜쿤과 포피리오스의 신화 및 그 이상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우드랜드 채플의 원시 오두막 이미지는 로지에의 것과 공명하며 '고전주의의 기원'으로서의, 좀 더 보편적으로는 '건축의 기원'으로서의 신화를 환기시킨다. 이 원시 오두막의 원형적 건축언어가 이후의 모든 건축의 근간이 될 거라는 암시이다. 둘째, 이 예배당은 바로 그 땅에 뿌리박은 '장소의 혼'을 섭취한 결과로서 '거주의 존재론'이라는 신화가 작동하는 쉘터라 할 수 있다. 북구 삼림이라는 하나의 세계는 이 쉘터를 통해 자아(거주자)와 매개되며, 자아의 실존 공간은 자기 내면에서 예배당의 돔 공간으로, 그리고 포티코를 통해 외부 세계로 확대되어 간다. 셋째, 우드랜드 채플의 존재 근거인 '죽음과의 대면'은 보다 상징적 의미에서의 신화를 창조한다. 망자를 애도하며 떠나보내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공간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움트는 기독교적 신화이자 실화의 장이다.[38] 이러한 신화창조의 마지막 가공이야말로 이 건물을 현실적 속박에만 가두지 않고 천상의 시를 꿈꿀 만한 기념비로 상승시키며, 재토착화된 고전이자 전설로 남게 한다.

4. 우드랜드 채플의 구축적 논리 문제

4-1. 구축의 시학과 도릭건축

이렇듯 우드랜드 채플이 고전주의가 재토착화된 중요한 예시가 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재고해야할 구축적 논리의 문제가 내재한다. 포피리오스에게 있어서 '구축의 논리'는 스칸디나비아 도릭주의뿐만 아니라 고전주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차 조건이다. 그는 텍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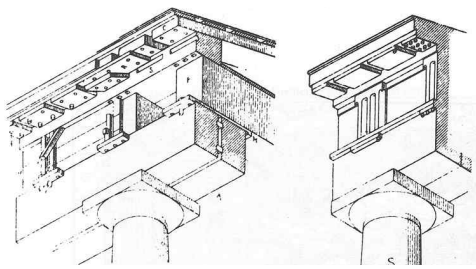
37) Porphyrios, 1982, p.57

38) 우드랜드 채플에는 기독교적 믿음과 이교도적 요소들이 혼재되는데, 지붕 정면의 '죽음의 천사'(Carl Milles, 1921) 조각과 안쪽 출입문의 '해골-뼈' 디테일이 주목할 만하다. 전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Constant(p.59)를 참조하시오.

닉의 합리성이 전제된 뒤에라야 고전주의가 양식에 대한 도착(倒錯)을 극복할 수 있고 '구축의 존재론'과 '도릭주의의 감수성'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39]

근래에 구축의 논리, 혹은 텍토닉의 문제를 폭넓게 다룬 이는 비평가 케네스 프람턴이다. 그간 건축이 '공간'과 같은 추상적 담론에 몰두해왔지만 사실상 건물이 있기 위해서는 구축이 먼저 있었다고 그는 지적한다.[40] 이 같은 생각은 근대주의적 건축 개념을 뒤집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건축의 본질은 벽이나 지붕이 아니라 그들에 둘러싸인 공간이라 말한다[41]) 근대주의적 철학 개념을 뒤집은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는 실존주의자들의 모토를 연상시킨다. 그는 '텍토닉(tectonic)'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용법, 그리고 건축과 관련하여 사용된 역사를 살피며, 이를 '구축의 시학(the poetics of construction)'이라고 정의한다.[42] 즉, 구조나 건설이 순전히 기술적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학'이나 '예술'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포피리오스가 구축의 논리에 신화적 가공에 덧입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맥이 닿는다. 이러한 구축의 시학으로서의 텍토닉 개념을 위한 '시금석'은, 스탠포드 앤더슨을 따른다면, "그리스 기둥의 엔타시스가 보여주는 내력(耐力)의 감각"이라 할 수 있다.[43]

그리스 고전건축은 구축의 논리에 미학적(혹은 신화적) 가공이 덧입혀져 파생된 결과라 하겠다. 비트루비우스에 의해 제기되었던 도릭 건축의 목조기원설은 목구조의 짜임새가 어떻게 석조건축으로 전이되었는지에 천착한다.[44]



<그림 12> 도릭 오더의 목조기원 도해
(A. Choisy, *Histoire de l'architecture*, 1899)

예를 들어 트라이글리프(triglyph)는 보의 단면을, 뮤튤(mutule)과 구태(guttae)는 각각 서까래와 나무못의 결구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석화된 목구조(petrified carpentry)'는 목조기원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석조건축의 미학적 세련 과정도 분명 보여준다. 따라서 현대의 학자들은 도릭건축에 대한 비트루비우스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대신 고전건축을 '정교한 미학적 발명'으로 보기도 한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릭건축에 목구조 논리의 흔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고전주의의 재토착화 관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석화되었던 고전건축이 다시 목조로 토착화되는 현상

39) 포피리오스는 「Introduction」, 「Scandinavian Doricism」 & 「Classicism is not a style」에서 지속적으로 텍토닉의 중요성을 전제한다. Porphyrios, 1982. 전술했듯(주 3 & 13) 본고에서는 'construction'과 'building'을 '구축'으로 번역했지만, 'tectonic'은 그대로 '텍토닉'으로 쓴다. 포피리오스가 암시했고 프람턴이 명확히 했듯, 본고는 '구축'에 시적 의미가 포함된 것을 '텍토닉'으로 정의한다.

40) "We may assert that the built is first and foremost a construction and only later an abstract discourse." Kenneth Frampton, *Studies in Tectonic Culture*, MIT Press, Cambridge MA, 1995, p.2

41) Frank Lloyd Wright, *An Organic Architecture*, Lund Humphries, London, 1939, p.3

42) Frampton, 1995, p.2

43) Kenneth Frampton,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1983에서 재인용

44) Marcus Vitruvius Pollio, 'Book IV',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Dover, New York, 1960, pp. 107-109

45) David Watkin, *A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3rd ed., Laurence King, London, 2000, pp.25-26

이 근원으로의 회귀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4-2. 우드랜드 채플의 모호한 구축 논리

3장에서의 서술처럼 우드랜드 채플이 재토착화된 고전주의의 특성을 잘 보여주지만, 반면 우리는 구축성의 측면에서 그 논리가 약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비구축적이라 부를만한데, 에듀어드 세클러가 "건축에서 하중과 지지체의 표현적 상호작용이 시각적으로 무시되거나 모호해지는 방식"이라 정의한 비텍토닉(atectonic)과 등가로 볼 수 있다.[46] 프람턴(1982)과[47] 피터 블룬델 존스(2006)는 이 건물의 비구축적 성격을 잠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고는 그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포티코의 도릭 기둥, 실내의 돔, 그리고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붕구조 전체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포티코 도릭 기둥의 주두가 천장과 만나는 면을 보자. 주두(柱頭)의 아바쿠스(abacus)는 주신(柱身)으로부터 올라온 에키누스(echinus)와 밀착되어 있으나 그 위의 천장과는 틈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포티코의 모든 기둥에 다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목재의 우발적 뒤틀림에 기인했다기보다 아스플룬트의 계획된 의도가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아마 아스플룬트는 그 틈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를 강조하기 원했을 것이다. 즉, 아바쿠스의 전면이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이 천장면과 접촉하여 하중을 주신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포티코 기둥의 모호해진 구축적 논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된다. 둘째, 실내의 돔은 회반죽으로 미끈하게 마감된 뒤 백색으로 도장되었고 천창으로부터 유입되는 빛과 어우러져 그 구조 및 공간에 비물질적 성격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 돔에서 전혀 무게감을 느낄 수 없는데, 이러한 특성 자체가 구축적 논리와 거리가 있다. 특히 돔이라는 구조 자체가 자중을 상호간의 추력으로 견디든, 뼈대로 힘이 전달되든 하부의 드럼이나 펜던티브나 피어로 적절한 지지체계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여덟 개의 기둥이 다소 무심히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 예배당의 돔이 스스로의 구조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물의 단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목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이 반구(半球)는 지붕의 구조체계 내에 짜여있고, 일부는 상부구조에 매달리는 형국을 이룬다. 셋째, 앞의 두 가지 비구축성은 결국 지붕의 전체적 구조가 구축의 논리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스플룬트에게 있어서 더 큰 관심사는 지붕을 하나의 볼륨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전술했듯 돔의 경우 그 볼륨의 반전이다) 그 볼륨을 떠받치는 외적 논리보다 이것을 구성하는 내적 논리에 더 충실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지붕과 돔이 갖는 원초적 형태의 이미지를 구축의 논리보다 우선시했다.

포피리오스가 스칸디나비아 도릭주의에 내재된 구축의 논리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의 대표적 예로 제시한 우드랜드 채플이 실상 그 구축성에 위배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축적 논리와 더불어 내세운 신화적 가공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모순점은 어느 정도 중화될 것이다. 또한 이 건물에 구축의 합리성이 전적으로 배제된 것도 (즉, '반구축적'인 것이) 물론 아니다. 다만, 포피리오스는 아스플룬트가

46) Frampton (1995, p.20)에서 재인용

47) Kenneth Frampton, 'The Classical Tradition and the European Avant-Garde'. In: Paavilainen (ed.), 1982, pp.161-173

구축성에 승(勝)하는 신화적 가공으로 건물의 시적 효과를 강화한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건축을 모델로 하여 고전주의가 싹텄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섬세하게 가공되어왔다. 그러나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고전 규범, 혹은 그 이전의 원초적 상태를 계속 갈구하게 한다. 콜쿤은 이와 같은 근원의 참조나 회귀의 과정을 '고전주의의 재토착화'라는 말로 설명했다. 한편, 포피리오스가 제기한 20세기 초의 스칸디나비아 도릭주의는 고전주의가 토착의 전통과 만나 성공적으로 융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그에게 있어서 고전주의는 양식이 아닌 감수성인데, 이러한 고전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착 건축의 구축적 논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것이 신화적 가공을 거쳐 미학적 가치를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포피리오스의 논제를 기반으로 콜쿤이 언급한 고전주의의 재토착화 관점에서 북구 고전주의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아스플룬트의 우드랜드 채플(1918-20)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는 이 건물에 나타난 재토착화된 고전주의의 특성 및 포피리오스의 주장과 다소 거리가 있는 비구축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재토착화된 고전주의의 특성에는 첫째, 고전주의에 의지하면서도 토착의 이미지를 진하게 발산한다는 사실; 둘째, 단순성으로의 회귀; 셋째, 신화창조의 힘 등이 있다. 그리고 비구축적 특성은 첫째, 아스플룬트가 포티코 기둥의 주두를 의도적으로 천장면과 밀착시키지 않은 점; 둘째, 무게감을 느낄 수 없는 실내 돔의 비물질적 특성 및 이 돔이 지붕의 구조체계 내에서 자력의 합리성을 갖지 못한 점; 셋째, 건축가가 지붕과 돔의 형태 이미지를 구축논리보다 우선시한 점 등이다.

포피리오스가 강조했던 구축의 논리가 자신이 스칸디나비아 도릭주의의 대표작으로 내세웠던 우드랜드 채플에 상당히 모호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하나의 아이러니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포피리오스의 조건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가 구축적 논리와 합리성을 강조했으나 신화적 가공이라는 미학적 탈출구를 열어두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람턴이 종합했듯 텍토닉이라는 것이 단지 테크닉이 아닌 구축의 시학이라 정의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드랜드 채플이 비록 지붕 구조와 그 지지체계에서 명쾌한 구조합리적 논리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결코 '반구축적'인 것은 아니다. 이 건물은 안정적으로 세워졌고, 그렇게 서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아스플룬트는 이 건물에 구축성을 넘어서는 신화적 가공을 덧입힘으로써 건물의 시적 효과를 강화하길 원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우드랜드 채플은 여전히 도릭주의의 감수성을 풍부히 지닌 재토착화된 고전주의의 중요한 예로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Peter Blundell Jones, *Gunnar Asplund*, Phaidon, London, 2006
2. Claes Caldenby & Olof Hultin (ed.), *Asplund*, Rizzoli, New York, 1986
3. Alan Colquhoun, *Modernity and the Classical Tradition: Architectural Essays 1980-1987*, MIT Press, Cambridge MA, 1989
4. Caroline Constant, *The Woodland Cemetery: Toward a Spiritual*

Landscape, Byggförlaget, Stockholm, 1994
5. Kenneth Frampton, 'The Classical Tradition and the European Avant-Garde: Notes on France, Germany and Scandinavia in 1912-37'. In: Paavilainen (ed.), 1982
6. Kenneth Frampton, 'Towards a Critical Regionalism'. In: Hal Foster (ed.), *The Anti-aesthetics*, New Press, New York, 1998 (1st ed., Bay Press, 1983)
7. Kenneth Frampton, *Studies in Tectonic Culture: The Poetics of Construction in Nineteenth and Twentieth Century Architecture*, MIT Press, Cambridge MA, 1995
8. Gustav Holmdahl, *et al.*, *Gunnar Asplund Architect 1885-1940: Plans, sketches, and photographs*, Tidskriften Byggmästaren, Stockholm, 1950
9. Charles Jencks, *The Language of the Post-Modern Architecture*, Rizzoli, New York, 1977
10. Neil Leach (ed.), *Rethinking Architecture: A Reader in Cultural Theory*, Routledge, London, 1997
11. Kate Nesbitt (ed.), *Theorizing a New Agenda for Architecture: an anthology of architectural theory, 1965-1995*,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New York, 1996
12. Simo Paavilainen (ed.), *Nordic Classicism: 1910-1930*, Museum of Finnish Architecture, Helsinki, 1982
13. Nikolaus Pevsner, *An Outline of European Architecture*, Penguin, London, 1972
14. Demetri Porphyrios (ed.), *Classicism is Not a Style*, Architectural Design & Academy Editions, London, 1982
15. Joseph Rykwert, *On Adam's House in Paradise: The idea of the primitive hut in architectural history*, 2nd ed., MIT Press, Cambridge MA, 1982
16. Marcus Vitruvius Pollio, *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trans., Morris Hicky Morgan, Dover, New York, 1960
17. David Watkin, *A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3rd ed., Laurence King, London, 2000
18. Richard Weston, *Alvar Aalto*, Phaidon, London, 1995
19. Stewart Wrede, *The Architect of Erik Gunnar Asplund*, MIT Press, Cambridge MA, 1980
20. Frank Lloyd Wright, *An Organic Architecture*, Lund Humphries, London, 1939
21. 김현섭, 「민족정체성의 건축적 구현: 1900년 전후 핀란드 민족낭만주의 건축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14권 4호, 2005, 59-72쪽
22. 김현섭, 「군너 아스플룬트와 알바 알토의 고전주의 건축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권 10호, 2010, 209-216쪽

<그림출처>

Blundell Jones: 1, 5, 11/ Rykwert: 3, 12/ Constant: 4/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6, 7/ Caldenby & Hultin: 8/ Wrede: 9, 10/ 필자: 2

접수(2011. 4. 13)
수정(1차: 2011. 6. 29, 2차: 2011. 7. 11)
게재확정(2011. 7. 11)

Revernacularization of Classicism and the Matter of the Constructional Logic

- A Study on Gunnar Asplund's Woodland Chapel (1918-20) -

Kim, Hyon-Sob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Gunnar Asplund's Woodland Chapel (1918-20) in terms of the revernacularization of classicism and to investigate into the matter of the constructional logic. The term 'revernacularization of classicism' was used by Alan Colquhoun to explain the process to return to the pure sources of classical architecture, and the case of a successful fusion of classicism and vernacular traditions was suggested by Demetri Porphyrios through Scandinavian Doricist sensibil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Porphyrios's classicism, not as style but as sensibility, is premised on a constructional logic of vernacular, and is to achieve an aesthetic quality by its mythical elaboration. Woodland Chapel, a representative of the Scandinavian Doricism according to him, illustrates characteristics of the revernacularized classicism as in the fact that it thickly displays vernacular images at the same time as relying on classicism; in the return to primitive simplicity; and in the mythopoeic power. However, the constructional logic of this building was obscured in the capital of the portico columns, the interior dome, and the whole structure of the roof. Confronting this paradox, we have to remember that although Porphyrios emphasized the constructional logic he opened an aesthetic exit of the mythical elaboration, which is in accord with the concept of the tectonic as the poetics of construction. Woodland Chapel assumes atectonic features but is never anti-tectonic. Asplund intensified a poetic effect by setting the myth over construction in the chapel, and so it can be seen as a key example of the revernacularized classicism with the Doricist sensibility.

Keywords : Revernacularization of Classicism, Constructional Logic, Gunnar Asplund, Woodland Chapel